

갑작스런 끼어들기 빈번...양보운전 절실

교통사고 줄입시다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상> 지하철 공사에 사라진 차선

수시로 차선 바뀌어 대혼란
광주 올 교통사고 2467건이나
열악한 도로상황 배려운전해야

2일 오전 8시께 광주 남구 미래아동 병원 앞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들 후미에 정지등이 들어왔다. 이내 여기저기서 경적소리가 터져 나왔다. 차량들의 갑작스러운 정지는 다름아닌 1차로 차량들의 끼어들기 탓이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한 개 차선이 축소되면서, 1차로를 타고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들이 갑작스레 사라진 차선을 보고 당황,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면 경적소리와 사소한 다툼으로 교통 지옥으로 변한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진행 중인 서구 월드컵경기장 인근도 공사 때문에 차선 감소로 혼잡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동구 필문대로상 조선탄 앞에서 지산사거리 또는 산수오거리를 출퇴근하는 운전자들도 애를 먹기 마찬가지다. 직장인 김모(30)씨는 "출퇴근 길이지만 공사 때문에 차선이 수시로 바뀌는 탓에 혼란스럽다"면서 "밀리는 차량과 차선 감소로 인해 우회전을 해야 하지만 할 수 없이 직진을 하는 등 정상적인 도로주행이 어렵고,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하기도 해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교통사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광주 동구 지산4거리 부근 차선이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사로 인해 축소되면서 일대를 지나는 차량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있다. 시민들은 지하철 공사 등 광주도심 대규모 공사로 인해 축소되거나 사라져 버린 차선 탓에 접촉사고가 빈번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차선을 지운 흔적으로 캔버스화된 공사 현장 일대 도로를 달리는 시민들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교통전문가들은 도심 속 주요도로에서 대규모 공사가 벌어지면 열악해진 도로 환경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오는 4월부터 백운고가철거 공사가 예고되면서 비교적 도로폭이 좁은 우회도로인 골목길 등 지선(支線)에도 혼잡이 우려돼 시민들의 주의와 안전

운전이 필요해 보인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4월 까지 발생한 광주지역 교통사고는 2467건으로 지난해 2404건에 걸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같은 기간 2019년 10명에서 2020년 2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부상자도 3834명에서 3978명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들어 하루 평균 지난해 대비 20% 이상의 교통사고가 접수된다"며 "도시철도공사로 축소된 차선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시민들의 안전운전 더욱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호남본부 관계자는 "타지역에서는 교통사고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광주에서는 올해 벌써 교통사고 사망자만 20명이 넘어섰다"며 "대규모 공사 등으로 열악해진 도로환경을 감안해 운전자들의 배려, 양보운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차선 변경이 잦아지는 만큼 방향지시등 점등, 야간 운행 시 전조등 점등을 습관화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월 지나도 5·18 알리기는 계속

세미나·기획전시 등 잇따라
강원·대전서는 다큐영화 상영
서울·대구서도 다양한 행사

'코로나19' 정국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는 기념행사는 계속 이어진다.

2일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 따르면 40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다양한 행사들이 올해 하반기까지 연이어 준비되고 있다.

우선 3일 광주 YMCA에서 5·18기간 동안 기독교사회운동을 조명하는 세미나가 진행된다.

오는 6-12일까지는 '우리동네 오월역사 이한열을 찾아라!' 기획 전시전이 광주 서구 광산구 일대에서 열린다.

20일에는 고려인 마을에서 '아시아가 품은 오월, 오월이 품은 아시아, May We...?' 영상제작이 이뤄진다.

광주를 넘어 타 지역에서 기념행사

가 이어진다. 6일 강원도 화천, 12일 여수 YWCA에서 오월여성다큐멘터리인 '외롭고 높고 쓸쓸한'이 상영된다. 대전에서도 상영회 일정이 조율 중이다.

13일 장성에서는 기념식이 열리고 같은 날 해남에서는 문화제가 개최된다.

9-10월에는 대구지역 대학에서 5·18 사진전이 열리고 10월에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10월 12-15일에는 서울광장에서는 5·18특별전시회가 예정돼 있다. 대체로운 문화행사도 계속된다.

오는 3, 14, 20일에는 극단 도깨비의 민주평화인형극 '동물의 왕국'이 2차례씩 광주 곳곳의 공연 등에서 펼쳐진다.

14일에는 놀이패 신명이 울산시 성남동 문화의 거리에서 오월 마당극 '언제 가봄날에'를 공연할 예정이다.

24일에는 서울 성동구 성수아트홀에서 오월 정신 계승 뮤지컬인 '비밀'의 막이 오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진돗개에 물려 3살배기 손가락 절단

광주서 공장안 개우리 철조망에 손 집어넣었다 사고

광산경찰, 공장 관계자 입건

36개월 남아가 진돗개에 물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지난 1일 오후 2시께 광주 서구 광산구 월전동 한 공장 안에서 개를 구경하던 A(3)군이 진돗개에 물렸다.

이 사고로 A군은 오른손 약지 한 마디가 절단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부모와 함께 길을 가던 중 개를 보겠다고 공장으로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이 다가가 개우리의 철조망에 손을 집어 넣자 진돗개가 달려와 손을 물었다

는 경찰의 설명이다. A군을 문 개는 목줄에 묶어 있었지만 철조망까지는 닿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산경찰은 개의 소유자인 공장 관계자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A군을 문 개는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이 아닌데다 사유지 내에서는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 소유자가 지켜야 할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유자가 해당 개를 자치구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동물보호법상 처벌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백운 고가차도 자리에 원형 육교 등 랜드마크 조성"

남구 백운광장 활성화 토론회
푸른길공원 연계 구조물 설치
미디어아트 등 볼거리도 필요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광주 남구 백운 고가차도(백운광장) 자리에 원형 육교 등 대표 건축물(랜드마크)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남구는 2일 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 '백운광장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류영국 지오시티 대표와 진

시영 작가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후 이명규 광주대 교수의 진행으로 김광수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조준혁 푸른길 사무국장, 이성기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4공구 감리단장, 노한중 백운광장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남구는 사업계획안 발표를 통해 랜드마크 설치를 주장했다.

남구는 "백운고가차도가 설치돼 있어 백운광장은 푸른길공원과 단절돼 있었다"며 "고가차도가 철거되면 인근 지역으로 연결되는 원형육교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구청이 백운광장 인근에 있기 때문에 입체적 보행 연결이 가능하도록 공중화랑 방식의 연계구조물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백운광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대표 건축물과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며 "남구청 사 벽면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여 눈길을 잡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백운고가차도 철거 이후 백운광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안도 제시됐다. 남구는 "푸른길공원은 하루평균 2만여명의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산책

만 하고 귀가하지 않도록 노상주차장을 활용한 스트리트푸드존 조성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해 주민들이 방문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푸른길공원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 명소로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남구만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시했다.

한편 백운광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 2023년까지 879억원 규모의 대규모 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동시에 지하철 2호선이 건설되고 백운 고가차도가 철거되면서 백운광장 주변은 남구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KBS 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는 공채 출신 개그맨

최근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은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A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방송가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신 출석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로 입건돼 1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앞서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A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해 내용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불법촬영 혐의가 더 있는지, 촬영물을 자신의 PC 등에 보관하며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문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